



태국 생명보험시장의 견조한 성장세

박정희 선임연구원

최근 저금리에 따른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생명보험 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태국 생명보험회사들은 IT 기술을 활용한 판매 지원 및 인터넷 판매를 위한 간단한 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변액보험(Unit-Linked)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태국은 현재 고령화와 의료비 고액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늦어 연금 등 은퇴 준비 관련 상품이나 의료보험의 수요가 향후에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임

- 2016년 태국 생명보험 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7.0% 증가한 5,605억 바트(19조 1,400억 원)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¹⁾
 -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최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저금리 지속²⁾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의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최근 태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Unit-Linked)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과 비교하면 태국의 생명보험시장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보험밀도와 침투도는 신흥공업국(NIE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과 비교 시 여전히 낮은 수준임³⁾
 - 이는 태국 생명보험시장의 향후 성장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줌
- 보험종류별 신계약 보험료를 살펴보면, 단체보험이 12.9% 증가한 446억 바트를 기록한 반면 개인보험이 전년대비 9.5% 감소한 1,073억 바트, 간이보험⁴⁾이 12.2% 감소한 6억 바트, 상해보험이 2.7% 감

1)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17. 9. 19), “タイの生命保険市場(2016年版)”; The Thai Life Assurance Association, “Annual Report 2016”

2) 태국 중앙은행(BOT)는 8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1.5%로 동결, 2015년 3월과 4월에 25bp씩 인하한 이후 1.5%에서 동결을 유지해 오고 있음

3) 2016년 태국의 보험밀도는 8,623바트, 보험침투도는 3.96%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4)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에 대한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생명보험임. 보험료는 매주 또는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소액임

소한 58억 바트를 기록하였음

- 개인보험 상품별 신계약 보험료는 종신보험이 전년대비 2.8% 증가한 297억 바트를 기록하였으나, 양로보험이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13.2% 감소한 729억 바트를 기록함
 - 정기보험도 전년대비 20.2% 감소한 44억 바트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는 양로보험이 전년대비 4.8% 증가한 3,473억 바트, 종신보험이 전년대비 4.3% 증가한 1,170억 바트를 기록해 양로보험이 생명보험시장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
- 판매채널별로는 대리점과 직판 등의 신계약 보험료가 전년대비 각각 0.6%, 6.4% 감소한 반면 브로커 채널은 전년대비 97.2% 증가한 84억 바트를 기록해 브로커 채널의 영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2016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축성 상품이 많은 은행창구의 판매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⁵⁾
- 생명보험회사별로는 Muang Thai Life, Krungthai AXA Life, SCB Life 등 상위 7개사의 신계약 보험료가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Thai Life만 유일하게 전년대비 3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Thai Life는 1997년 삼성생명과 합작한 회사로 태국시장 진출 이후 첫 흑자를 기록함
 - 이는 모집인 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켜 가동 인원을 확대, 표준화된 영업모델로 판매조직의 질을 개선한 데 기인함
- 2016년 태국의 보험회사 운용자산 비율은 공공채권이 63.1%, 민간채권 19.9%, 주식 등 11.0%, 대출 4.9%임
 - 그러나 주가 상승과 저금리 환경 지속에 따라 공공 채권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민간채권이나 주식 등, 대출의 비중이 상승하였음
- 태국은 현재 고령화와 의료비 고액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늦어 연금 등 은퇴준비 관련 상품이나 의료보험의 수요가 향후에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kiri**

5) 2016년 수입보험료 기준 채널별 비중은 대리점이 전년대비 0.9%p 감소한 5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은행은 전년대비 0.7%p 증가한 43.0%로 그 뒤를 따름